

‘26년까지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지원 목표는 총사업비 기준 약 8조원이며, 현재까지 3.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투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- 2026.10.5.(월) 매일경제는 「지방 살리겠다며 15조 내걸고...지역활성화펀드, 3년간 투자 1,800억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“연간 3조원씩 2028년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”이나, “현재까지 10개 프로젝트(총사업비 3조 5,652억원)만 투자 대상으로 선정되어 목표치의 약 5분의 1 수준이고, 실제 투자액도 1,826억원에 불과하다”고 하면서,
 - “실제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도 3개뿐”이고, “2년 전 선정된 일부 프로젝트 조차 자펀드 결성·투자 실적이 저조하다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- 기사에서 비교한 15조원과 1,826억원은 산정 기준과 대상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.
 -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모펀드 조성액의 약 10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구조로, 15조원은 '24~'28년 매년 3,000억원의 모펀드 조성을 가정하여 산출한 5년간 프로젝트 총사업비 목표*입니다. 반면, 1,826억원은 '26.8월 말까지 실제 집행된 자펀드 투자액입니다.

* 15조원 = 모펀드 3천억원 × 레버리지 10배 × 5년

- 한편, '24년과 '25년은 각 3,000억원, '26년에는 2,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, '24~'26년 모펀드 누적 조성액 8,000억원에 상응하는 총사업비 약 8조원과 현재까지 선정된 프로젝트의 총사업비 약 3.6조원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.

□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 방식의 개발사업 특성상 사업 선정부터 실제 투자집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.

- 각 모펀드에는 2년의 투자기간이 부여됩니다. '24년 모펀드는 투자기간 내 소진과 자펀드 결성을 완료*하였으며, '25년 모펀드는 '27.5월까지 투자기간이 진행 중입니다. '25년 및 '26년 모펀드도 투자기간 내 모펀드 소진과 자펀드 결성을 추진하여, '24~'26년 누적 총사업비 약 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

* '24년 모펀드 3,000억원 전액 소진, 자펀드 6,002억원 결성(총사업비 약 3.3조원)

- 모펀드 운용사의 프로젝트 선정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, 민원 대응, 사업 조건 조정 등이 진행되며,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자펀드 결성에 최대 10개월이 소요됩니다. 또한, 대주단 모집 등 자금조달 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되며, 투자금은 공정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됩니다.

□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,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'26년에는 복수의 모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, 자펀드 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*하였습니다.

* 재심사 횟수 제한(제한없음 → 1회), 재선정 시 결성기한 단축(최대 10개월 → 4개월) 등

- 아울러, 로드쇼를 통하여 지방정부에 교육·컨설팅을 제공하고, 운용사·투자기관·지방정부 간 매칭데이를 개최하는 등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예산실 지방재정팀	책임자	팀 장	박민정 (044-214-3190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주 (journey@korea.kr)
		담당자	전문관	박신규 (parkshinkyu@kdb.co.kr)
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박재훈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이송이 (mushroom92@korea.kr)